| 현불논단 |

언론, 신뢰 회복 위해서는…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옥스퍼드大 뉴스 신뢰 조사서
韓언론 46개국 중 '40위' 기록
대중 "뉴스 불신, 편향적" 인식

정치권 편가르기, 진영 갈등에
언론들도 편승해 분열 부추겨
편향적 뉴스, 인식 왜곡 이끌어

2022년 사자성어 '過而不改'는
韓사회와 언론에 해당되는 金言
언론,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하길

한국 언론이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실시한 뉴스 신뢰도 조사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2〉에서 한국은 전체 조사대상 46개국 중 40위라는 최하위의 부끄러운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 이용자 3명 중 2명(67%)이 뉴스를 선택적으로 회피한 경험이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뉴스를 신뢰할 수 없거나 편향적"(42%)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국제 조사기관 입소스가 2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 정치적 갈등에 대한 조사에서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7%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국민 갈등과 분열이 위기의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으며, 상대를 향한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극단주의 정치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후진적 정치에 편승해 '편가르기' '진영 갈등 부추기기'를 일삼는 언론의 행태는 가히 심각한 수준으로서, 이런 퇴행적 관행이 지속하는 한 언론이 신뢰를 말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언론이 신뢰를 얻기 위한 기본 조건은 사실과 의견의 분리, 주관과 객관의 구분, 취재원 실명 보도, 엄정한 사실 검증, 시민에 헌신하는 보도, 투명한 취재 방법 공개, 적극적인 정정보도 등을 준수하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 드러나는 언론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원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튜브 유사 언론 채널이 생산하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검증 없이 받아 유통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가 하면, '미디어 비평'이란 이름으로 출발한 프로그램이 한쪽 편은 때리고 비판하면서 특정 진영의 스캔들에는 선봉에서 방어전을 펼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언론이 기본 원칙을 멀리하고 정파적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신뢰 회복의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지나친 정파적 편향성과 가짜뉴스의 확산은 뉴스 이용자의 편향된 뉴스 소비로 확증편향을 강화해 왜곡된 사회인식을 부추길 것이다. 또한 정파적 뉴스 소비 성향이 강화되면 정치권에 대한 비호감이 언론에 대한 비호감으로 전이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고, 이는 민주주의 발전 및 언론 신뢰 구축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

신뢰를 뜻하는 영어 단어 'Trust'는 '편안함' '위안'을 의미하는 독일어 'Trost(트로스트)'에서 온 말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게 되면 그와의 관계가 편안해지고 그로부터 위로받고 싶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믿음과 편안함을 주는 언론과의 관계가 편향과 왜곡의 토대 위에 구축된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은 신뢰를 '기대치에 대한 확신'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개인이라는 점과 점 간의 관계, 즉 연결로 구성된 그물망 속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연결의 강도는 신뢰에 비례한다. 연결의 강도가 강하고 다양할수록 우리는 인간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교수신문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올해의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정했다고 한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이라는 뜻으로 논어의 위령공편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다. 선정에 참여한 교수들은 학계의 연구윤리 문제와 함께 정치권의 행태를 꼬집었다고 하는데, 이 현상이 어디 이 두 영역에만 국한할 일이겠는가.

언론은 취재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관과 객관을 구분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엄정한 사실 검증뿐만 아니라 정정과 사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해져야 한다. 이것이 새해를 앞둔 언론이 신뢰 회복을 위해 다시 디뎌야 할 첫걸음이다.

社 說

상월결사 법인화, 새로운 포교 발판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결사체인 상월결사가 12월 18일 사단법인 출범식을 가졌다. 법인 설립을 통해 영속적인 활동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한국불교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결사가 있었다. 하지만 결사 당시 결사에 동참한 이들이 모여 사단법인을 만든 것은 최초라 할 수 있다.

상월결사를 이끄는 회주 자승 스님은 이사장으로, 결사에 동참하는 스님들은 이사 등으로 자리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기부금 CMS 처리다.

이번 상월결사의 사단법인화로 인하여 결사에 지지를 보내는 수많은 성원들을 공적인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와 함께 상월포럼과 상월아카데미를 통하여 다양한 포교사업을 진행하는 점도 기대를 모은다. 기존 불자인연맺기 단체인 수미산원정대와 인도성지순례를 앞두고 있는 상월순례단과 함께 활동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상월결사는 새해를 맞아 이제 준비작업을 모두 마쳤다.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인도 성지순례 이후 새로운 포교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기세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순례 과정에서 지은 게송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추니 수미산이 사바세계로구나'는 수미산이 멀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바세계 한복판이 그 곳이라는 일대 선언이었다. 이후 상월결사는 이러한 정신하에 '불교중흥'의 대장정에 이어 '국난극복' '세계평화'라는 사회적 운동까지 전개했다.

상월결사 사단법인화로 보다 체계적인 포교운동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2023년 한국불교 도약 기대하며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올 한해 한국불교에게는 변화의 시기였다.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의 신성(神聖)인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추대법회가 봉행됐고, 행정 수장인 총무원장에 진우 스님이 취임했다. 진우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갈 것"을 선언했다.

천태종 총무원장에는 무원 스님이, 관음종 총무원장에는 법명 스님이 취임하며, 종단 안팎의 변화를 예고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며 3년 만에 연등회가 대면으로 재개됐다. 특히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연등회여서 더욱 의미가 컸다. 경북 울진 산불,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재난에 불자들이 앞장서 자비의 손길을 내민 것은 큰 감동을 줬다.

좋은 일만큼 궂은일도 적지 않았다. 올해에도 가톨릭 성지화 사업으로 불거진 주어사지 문제와 신안군 천사섬 사업 논란, 법계도 도용 등 종교편향과 불교 왜곡 사례들이 연이어 발생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도 이어졌다.

내부적으로는 출가자 감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조계종의 경우 올해 출가자 수가 61명으로 한해 출가자 100명 선이 무너져 사실상 '출가 절벽 시대'가 도래했음이 확인됐다.

출가자 감소 문제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출가 자원인 불자 청년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간 도외시했던 세대 전승과 어린이·청소년·청년 포교의 여파가 직접적으로 다가온 것이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가 불교중흥"임을 강조하고 있다. 2023년 계묘년은 포교를 통한 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가 되길 기원한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⑩ 영화 '헌트'

사냥꾼과 사냥감

배우 이정재가 처음으로 메가폰을 잡은 '헌트'는 소재부터 흥미롭다. 전두환 정권 당시 안기부 내 해외팀과 국내팀의 반목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망명을 신청한 북한 고위 관리로부터 안기부 내에 스파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해외팀 박평호(이정재) 차장과 국내팀 김정도(정우성) 차장은 스파이인 '동림'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다.

영화제목이 헌트인 이유는 해외팀과 국내팀 둘 다 사냥꾼이 되지 못하면 사냥감이 되어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일 것이다. '헌트'는 시종일관 긴장감이 유지되는데, 이는 '누가 동림인가?' 하는 의문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감독은 영악하게도 내러티브 상 박평호와 김정도 둘 다 동림일 수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영화의 몰입도를 높였다.

5.18 민주화 운동,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이웅평 귀순 사건 등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봤을 때 이 영화는 전두환 정권이 시대적 배경이 분명해 보이는데, 동림의 모티브가 된 동백림(東伯林) 사건은 박정희 정권 당시에 벌어진 사건이다.

그래서인지 필자는 '헌트'를 보고나서 천상병 시인이 떠올랐다. 1967년 베를린의 한국유학생들이 한 동포의 주선으로 동베를린을 구경한 것이 동백림 사건의 발단이다. 동백림 사건에 연루된 천상병 시인은 6개월간 옥고를 치렀고, 그 과정에서 전기고문을 받았다. 고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천상병 시인은 평생 동안 자식을 갖지도 못하였고, 정신질환까지 앓아야 했다.

동백림 사건 당시 법정에서 변호사가 "두 사람은 네 것 내 것이 없이 지내는 사이가 아닙니까"라고 묻자 천상병 시인은 "아닌데요, 나는 가난해서 항상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지 한 번도 줘보지는 못했죠"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처럼 천상병 시인은 천진한 사람이었다.

동백림 사건은 천상병 시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서울대에 입학할 만큼 명석했던 시인은 평생 동안 백치처럼 살아야 했다. '귀천'을 비롯해 죽음을 주제로 한 많은 시편들을 남긴 것도 동백림 사건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1972년 천상병 시인은 자신을 간호해주던 친구 여동생과 결혼했다. 상처 입은 시인의 영혼을 평생 동안 위무한 것은 바로 시인의 아내였다. 그런 까닭에 천상병·목순옥 부부의 인연은 삼세(三世)의 지중한 인연이라고 밖에는 달리 형용할 말이 없다.

권력이라는 사냥꾼의 총에 맞아 피 흘려야 했던 천상병 시인은 이런 시구를 남겼다.

내 살과 뼈는 알고 있다.
진정한 고통
그 어느 쪽이 강자인가를…….

내 마음 하늘
한편 가에서
새는 소스라치게 날개 편다.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불교TV 방송포교 27년

만약, 이 시대에 부처님께서 나투신다면 어떻게 전법하실까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법을 전하였지만,
오늘날이라면 방송국 카메라앞에서 법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송포교 매체가 BTN불교TV입니다

BTN 붓다회는 BTN불교TV의 방송포교 원력을 후원하는 모임으로
누구나 동참가능합니다.

오늘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 1855-0108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